

금호타이어 파업사태 풀리나

금호산업 9500억 자산매각 완료

8000억원 금융권 차입금 상환...경영 정상화 꾀걸음

노조 13~15일 부분파업 잠정중단

“사측과 교섭 성과 없으면 전면파업”

금호타이어 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한 달 째 이어가던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 달 불려섬으로써 사측의 전략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사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13일 교섭을 재개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징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회사 측과 성실 교섭을 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현재 진행 중인 부분파업을 접고 정상 조업을 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10일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근무조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일까지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노조는 13~15일 회사 측과 교섭을 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1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10일

부터 시작한 부분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생산손실액이 800억원대에 달한다.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간 파국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파업 중단은 파국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조합원들은 지난 2010년 40% 이상 임금삭감과 3년간 임금동결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며 “사측과 채권단에 임금인상과 반납금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파업 중단 결단에 대해 사측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13일째 교섭을 재개해 성실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처럼 잠정적으로 파업을 멈추기로 함에 따라 회사 측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그동안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 13% 인상, 2010년 노사합의에서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2010년 합의사항(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 준수를 고수하며, 격려금으로 지난 5월 상여금의 1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등 95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다. 금호산업은 이 중 8000억원을 금융권 차입금 상환에 쓴다.

9일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인 ‘코에프아이비케이에스 케이스트론 기업채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케이에이치 고속투자주식회사’(SPC1)와 ‘SEB투자유한회사’(SPC2)에 각각 핵심자산인 ▲금호고속 지분 100% ▲대우건설 지분 12.28% ▲서울고속

버스터미널 지분 38.74%를 매각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매각 금액은 금호고속이 3300억원, 대우건설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6200억원으로 총 9500억원이다.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을 3년 이내에 되살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차입금을 상환하면 금융비용이 줄고 부채비율이 좋아져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인 ‘코에프아이비케이에스 케이스트론 기업채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는 무한책임투자자(GP)인 IBK투자증권과 케이스트론, 유한책임투자자(GP)인 정책금융공사와 연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총 자본금 5000억원 중 1840억원을 출자했다.

SPC1과 SPC2는 이 PEF로부터 각각 1200억원과 3800억원을 출자받고, 신한·우리·하나은행으로부터 총 4500억원을 차입해 금호산업의 자산을 사들였다.

PEF는 기업구조 개선기업의 재무 안정을 위해 투자하고 운용수익을 투자자에 배분하는 회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은 기준금리 3.0% 동결

한국은행은 9일 김종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2011년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 만인 올해 7월 시장의 예상과 달리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 금리 인하의 효과를 당분간 지켜봐야겠다는 판단이 이달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면 경기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

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지만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고, 올해 2분기는 전분기보다 0.4% 성장했다.

성장을 예상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그런대로 선방했다.

그런데 두 달째 금리를 내리면 불안심리만 증폭돼 소비·투자가 위축되고 내수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LG경제연구소 신민영 거시경제담당 부문장은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하반기 한두 차례 금리를 내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니콘 하반기 신제품 발표 니콘이미지코리아는 니콘 J 시리즈의 신제품인 니콘 J2를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이 제품은 유효 화소수 10.1메가 픽셀의 니콘 CX포맷 CMOS센서와 DLSR인 D4와 같은 화상 처리 엔진인 '엑스피드(Expeed) 3'엔진을 탑재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프레이저호텔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확대된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이상 체납자에서 1년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현재 1만1천 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범위는 올해말 6천8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증설 PVC 생산 세계 10위 부상

한화케미칼의 PVC(폴리염화비닐) 생산능력이 세계 10위권으로 부상했다.

한화케미칼은 여수사업장 내에 4만2000㎡ 규모의 PVC공장을 지난 8일 증설, PVC 생산능력이 연 86만에서 90만톤을 넘어서면서 세계 10위권으로 뛰어올랐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 PVC 생산으로 연간 500억원의 매출과 100억원의 영업이익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증설은 해외 기술제휴가 아닌 자체기술로 건설해 기술적 자립을 이뤘다는데서 의미가 크다”며 “시운전에서 양산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PVC증산은 시운전 첫날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안정된 운전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광주 130개 사회적기업 제품 금남 지하상가에 공동판매장

광주지역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취급하는 공동전시판매장이 금남로 지하상가에 들어선다.

광주시는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전시판매장을 금남 지하상가에 설치, 오는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전시판매장에서는 130개 사회적기

업이 만든 수공예품과 친환경비누, 경옥고, 화장지, 양초 등을 판매한다. 또한 고객센터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홍보 시설 등도 운영한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월드캡경기장 주차장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한마당’을 열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영산강변 불법 경작 점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9일 영산강변 불법 경작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차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둔치와 독비탈면 등의 경작 행위, 폐자재 적치, 조립식 건물 설치 등에 대해 연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반은 최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경작 25건을 적발해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폐자재 적치 4건 등에 대해 철거를 명령했다.

박명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4대강 사업으로 정비한 영산강이 불법 경작과 시설물 설치 등으로 다시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영산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40.59 (+37.36)
▲ 코스닥지수	474.05 (+2.63)
▲ 금리 (국고채 3년)	2.82% (+0.06)
▲ 원·달러 환율	1,125.50원 (-2.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휴대용 가스렌지

편리한 만큼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세요~

- 조리중에 부탄캔을 화기가까이 두지 않기!
- 삼발이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금지!
- 부탄캔 가열금지!
- 알루미늄 호일 사용금지!
- 쓰고남은 부탄캔 분리 보관

MKE 지식경제부 KGS 한국가스안전공사